

《型世言》의 評者和 評點비평에 관한 연구*

崔 溶 澈**

<목 차>

1. 머리말
2. 崢霄館 간행 소설의 서문과 평어
 - 2.1 쟁소관의 운영과 출판
 - 2.2 陸雲龍과 陸人龍
3. 《型世言》의 평자와 비평 체계
 - 3.1 서문과 평자의 형식
 - 3.2 미비와 후인의 평어
 - 3.3 현존하는 삽화 고찰
4. 맺음말

1. 머리말

본고에서 필자는 《형세언》의 서문과 평점에 대해 구체적인 고찰을 하기에 앞서 규장각본이 발견된 초기부터 필자에 의해 시작된 이 책의 조사와 영인, 그리고 국내외 학자의 연구, 이어서 대만에서의 영인본 출판, 국내외 교감본의 간행 등의 과정을 정리하고 본고를 작성하게 된 간략한 연유도 함께 피력하고자 한다. 이처럼 緣起의 형태로 밝히는 것은 필자가 오랫동안 간직해 온 《형세언》과의 묶음 인연을 털어내기 위한 계기로 삼고자하기 때문이다.

1987년 프랑스로립과학원의 연구원인 화교학자 陳慶浩선생은 대만 東吳大學의 王國良교수(현재는 臺北大學교수)와 함께 한국 한문소설의 교감본 간행

* 본 논문은 2010년도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특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음.

** 高麗大學校 中文科 教授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다. 陳慶浩선생은 일찍이 홍콩中文大學과 파리7대학에서 《홍루몽》의 脂硯齋評本 연구로 이름이 있는 학자여서 필자의 대만 유학시 안면이 있었기에 당시 동방문학비교연구회의 초청강연에서 필자가 통역을 맡게 되었다.¹⁾ 다음날 두 사람은 서울대 奎章閣을 방문하였고, 이때 규장각에 소장중인 《型世言》이 그동안 중국의 소장목록에서는 보이지 않던 明末에 간행된 原本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陳선생은 프랑스로 귀국하기 전에 필자에게 청하여 이 책의 정밀한 조사를 부탁하였고 그 후에도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 와 자료의 조사상황을 상세히 문의하였다. 필자는 그 후 수차례에 걸쳐 규장각을 방문하여 이 책을 직접 조사하고 자료를 일일이 영인하여 연구를 위한 조건으로 파리의 陳慶浩선생에게로 우송하였다. 陳선생은 기존의 학술적 성과를 바탕으로 이 책의 판본유래를 상세히 연구하고 더불어 기왕에 전해지던 《幻影》, 《三刻拍案驚奇》, 《(別本)二刻拍案驚奇》(別刻)와의 관계를 세밀하게 고증한 후에 프랑스와 일본 등지에 소장중인 《別刻》에 들어있던 《형세언》의 원본 삽화를 일부 찾아내어 연구를 더욱 진척시켰다. 1989년 전후하여 필자는 臺灣大學에 제출하는 박사논문 《清代紅學研究》의 완성에 매진하고 있던 터라 아쉽게도 이 책에 관한 실질적인 연구에는 참여할 수 없었다. 이 무렵 陳선생은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함께 자료를 학계에 제공하고자 대만 中央研究院 中國文哲研究所와 접촉하였고 당시 필자의 지도교수였던 吳宏一소장은 이 책을 《珍本古籍叢刊》 제1집으로 간행하기로 결정하고 陳선생을 통해 연락을 보내와 奎章閣과의 연락을 취하도록 하였다. 고전소설 전공 학계의 순수한 연구를 위한 영인본 간행의 취지를 받아들인 奎章閣의 허락을 받아 1992년 이 책의 영인본이 대만에서 간행되었다. 그러자 臺灣과 中國의 중국문학계는 근 400년 만에 발굴된 명말 화본소설집의 출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 교감본 간행과 작품 연구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²⁾

1) 당시 陳慶浩교수는 대만에서 《越南漢文小說叢刊》을 간행한데 이어 《日本漢文小說叢刊》을 기획하고 있었으며 끝으로 《韓國漢文小說叢刊》의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고려대 丁奎福교수를 찾아왔던 것이다. 후에 필자는 그가 쓴 <越南漢文小說叢刊總序>를 동방문학 비교연구총서2 《衝擊과 調和》(國學資料院, 1992)에 번역하여 발표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이 무렵에 일부 한국학자도 또 다른 경로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형세언》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89년 12월 국내에서는 필자와 더불어 일군의 소장 학자를 중심으로 중국소설연구회가 결성되었고 이듬해 1990년 3월부터는 뉴스레터 형식의 《중국소설연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기 시작했다. 당시 '조선시대 중국소설 번역본의 연구'를 주제로 박사논문으로 준비하던 朴在淵선생은 樂善齋本 《형세언》(언해본)의 원본을 조사하던 중, 그 원본이 중국에서는 오래전에 일실되었고 유일본이 奎章閣에 소장됨을 확인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陳慶浩선생의 《형세언》발굴과는 별도로 朴在淵선생의 《형세언》교감은 지속적으로 《중국소설연구회보》에 발표되었고 후에 1993년 강원대 출판부에서 교감본을 간행하게 되었던 것이다.³⁾ 이해 대만에서 유학중인 權寧愛선생은 곧바로 이 책에 관한 첫 번째 박사논문 《型世言研究》⁴⁾를 중문으로 발표하여 큰 주목을 받았다. 중국에서 일찍이 사라졌던 《형세언》이 조선시대 문헌에서도 이미 보이고 낙선재 언해본으로 번역도 되었으며⁵⁾ 그 원본이 규장각에 남아있음에 따라 《형세언》은 명

2) 《型世言》(上下二冊), 導言 陳慶浩,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珍本古籍叢刊1, 1992. 臺北. 권두에는 奎章閣 소장본 《型世言》의 書影二張(崔溶澈攝)과 《幻影》, 《三刻拍案驚奇》, 《(別本)二刻拍案驚奇》 등의 書影을 수록하였고, 陳慶浩선생이 따로 수집한 插畫 14葉(28幅)을 실었으며 陳慶浩선생의 <導言: 一部佚失了四百多年的短篇小說型世言的發現和研究>를 실고 있다. 이 글은 《中國文哲研究通訊》 제2권4기(1992. 12)에 약간 줄여서 실리고, 筆者는 이를 번역으로 《中國小說研究會報》 제13호(1993. 3)에 <型世言—4백년간 묻혔던 단편소설집>의 제목으로 발표했다. 朴在淵선생은 또 《中國小說研究會報》 제15호(1993. 9)에 陳慶浩선생이 1993년 北京香山會議에서 발표한 <型世言研究補論>을 번역하여 발표하였다. (中文은 후에 나온 《一九九三年中國古代小說國際研討會論文集》에 수록, 開明出版社, 北京, 1996) 이 책의 간행시기(1632전후)로부터 발굴(1987)과 영인시기(1992)까지는 실제로 355-360년가량이므로 후에는 <話本小說型世言: 遺失三百多年的珍品>(司馬師) 등과 같이 3백여 년이라고 고쳤다.

3) 朴在淵선생은 당시 개별 원문 작품을 교감하여 1992년에 나온 《중국소설연구회보》의 제10호(6월), 11호(9월), 12호(11월)에 3차에 걸쳐 연재하였는데 각각 원전의 제4, 9회와 제8, 10, 12, 16, 17회와 제22, 24, 31, 32회를 교점한 것이다. 이에 관한 연구는 그의 박사논문 《조선시대 중국통속소설 번역본의 연구》(한국외대, 1993. 2)에 반영되었고 그가 교점한 《型世言》은 강원대출판부에서 1993년 7월에 간행되었다. 대륙에서는 북경의 중화서국에서 같은 시기에 覃君점교본(1993. 7)이 나왔으며 이후 10여종 이상의 교점본이 줄을 간행되었다.

4) 權寧愛선생의 대만 동오대학 박사논문은 곧 대만 福記文化圖書有限公司에서 간행(민국82, 1993. 9)되어 중문학계에 널리 영향을 끼쳤다.

실공이 우리나라와 깊은 관련을 맺은 중국소설이 된 것이다.

당시 중국소설연구회에서는 회원들이 각 회별로 번역을 분담하여 수차례에 걸쳐 번역문을 연재하였으나 이쉽게도 전체를 완역하지는 못했다.⁶⁾ 이 책의 발굴과정에 참여하고 연구와 번역을 독려하며 함께 했던 필자로서는 또한 그 책임을 통감하며 향후 현대 완역본과 연구논총의 완성에 노력하고자 한다.

대만의 영인본에는 두어 군데의 훼손된 부분이 있고 상단부 영인이 누락된 곳이나 眉批가 불명확한 곳이 있어서 陳慶浩선생은 필자를 만날 때마다 이것이 보완되기를 희망했다. 필자는 오랫동안 마음에만 두고 있다가 최근 다시 자료를 찾아 확인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본문이 훼손된 부분은 교감본에서 이미 다른 판본으로 보완이 된 상태이고, 미비의 경우도 애초에 없는 부분만을 잘라내고 영인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달라질 것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이 책의 평점에 대한 개략적인 언급만 있을 뿐,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적은 것을 알고 이에 관심을 갖고자 했다.

《型世言》의 평자와 작자는 형제간으로 거의 공동으로 책을 편찬하고 출판하며 서점을 운영하였다. 다른 책에 비하여 수많은 필명을 사용하며 각 회마다 서문과 회말평을 쓰고 본문에도 수많은 미비를 남긴 것은 단편인 화본소설의 경우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명말의 해이해진 윤리도덕을 강조하는 평자의 文以載道의인 사상이 이러한 서문과 평점을 통해서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점도 다른 소설과는 다른 독특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5) 《型世言》의 서명은 英祖 38년(1762)에 쓰인 《中國小說繪模本》完山李氏(최근 思悼世子로 밝혀짐)의 서문에 보이고 있어 일찍부터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낙선재 언해본 《型世言》은 낙질 4책(제3, 4, 5, 6책), 총 15편이 전하고 있고, 별도의 《朱仙傳》에 2편이 전해지고 있어 모두 17편의 연해 작품이 남아있다. 대부분 주인공의 이름을 딴 '傳'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朱仙傳》안에 실린 <朱仙傳>은 제34회, <河維喆傳>은 제39회에서 온 것이며, 특히 <주선전>은 원래 朱元璋의 <周顛仙傳>에 근거한 것이나 한자표기 과정에서 오기되었다. 장서각 소장본 《朱仙傳》 외에 최근 개인소장 《朱仙傳》필사본이 발굴되어 당시 왕실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형세언》의 번역 작품이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박재연, 김영 <명대 화본소설 형세언의 번역필사본 주선전>, 동방문화비교연구회 국제회의 발표(2012. 2. 16-17, 상지대학교).

6) 《중국소설연구회보》에 1994년과 1995년 사이에 발표된 번역문은 총 9편으로 박재연, 이민숙, 조득창, 이재홍, 김지선, 유미원, 김민호, 문정진, 김명신 등이 각 1편씩 번역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陸氏 형제가 간행한 소설의 서발문과 함께 《型世言》에 실린 평점의 형식 및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崢霄館 간행소설의 서문과 평어

崢霄館은 陸雲龍이 운영하던 書坊의 이름이다. 書坊은 書肆라고도 하며 곧 오늘날의 출판사 겸 서점을 의미한다. 쟁소관은 陸雲龍과 그의 아우 陸人龍 그리고 몇 명의 동료들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들의 주요 업무는 간행할 책을 선정하고 서문과 발문 및 평점을 가하여 이를 출판하여 유포시키는 일이었다. 역사적 대사건이나 혹은 당시에 주목받는 시사적인 사건의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정리하고 가공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 그들의 독특한 임무는 자신의 세계관과 국가관에 의하여 몰락하는 명말 사회를 일깨우기 위한 도덕 윤리를 강조하는 평론을 가하는 것이었다.

2.1 쟁소관의 운영과 출판

명말의 출판문화는 이미 상당히 발달하여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었다. 특히 남경과 소주, 항주 등의 지역에서 다양한 실용서와 통속물을 간행하면서 독자층의 환영을 받고 있었다.

錢塘(항주)에 자리 잡고 있던 書坊 崢霄館은 당시 치열한 출판사업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육운룡이 書坊主(출판사 대표)가 되어 만들어진 쟁소관은 대략 명말인 1625년경에 만들어져 청초인 1666년 육운룡의 사망 때까지 약 40년간 지속하며 수많은 책을 간행하였다. 지금까지 현존하는 책만도 18종에 이르고 있고, 서목에 남아 전하는 것도 따로 18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세언》의 간행자이면서 서문과 평어를 쓴 육운룡과 작품의 편찬자 육인룡은 형제다. 이들은 함께 쟁소관을 운영하면서 특히 당시 통속문학가로서, 수많은 저술을 남긴 풍몽룡의 저작 방식을 많이 따른 것으로 보인다. 蘇州출신의 풍몽룡은 민간문학의 수집과 정리에 남다른 공헌을 하여 문학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다. 그의 ‘三言小說’은 훗날 화본소설(의화본)의 간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우선 형식적 체제에서 40편의 단편소설을 묶어서 하나의 작품집으로 엮는 방식이 훗날 《박안경기》와 《형세언》에 고스란히 남았고 각 작품에 대한 정교한 삽화를 만들어 권두에 수록하는 형태 또한 그대로 답습되었다.

소설 평점의 시작은 宋 劉辰翁의 《世說新語評注》부터이지만 본격적인 평점비평은 명대 후기 李卓吾의 《水滸傳》비평에서 시작되었으며 청초 金聖嘆에 이르러 거의 완성되었다.⁷⁾ 이들은 모두 작품의 유통과정에서 참여한 평점비평가들이다. 四大奇書의 평점은 이처럼 작품의 창작과 평점의 삽입과정은 시간적 차이를 갖고 있다. 이에 비해 《홍루몽》의 경우는 창작 과정에서 비평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脂硯齋는 작자 曹雪芹이 《홍루몽》을 창작하는 과정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구체적인 간섭도 하고 과정을 밝히고 분석하는 평점도 썼다. 그리하여 작가 생전에 나온 초기 필사본은 《脂硯齋重評石頭記》라는 평점본의 이름을 지니고 있었다.⁸⁾ 그런데 명말에 이미 崢霄館의 서방주 陸雲龍과 그의 아우 陸人龍의 소설편찬과 간행과정을 살펴보면 바로 조설근과 지연재의 경우와 같이 창작과정에서 서로 협력하며 이미 평점비평본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쟁소관에서 육운룡 형제에 의해 간행된 소설은 《魏忠賢小說斥奸書》, 《遼海丹忠錄》, 《型世言》 등 세 종류다. 이 작품들의 원제를 살펴보면 애초부터

7) 四大奇書의 평점 중에서는 李卓吾의 《수호전》평점, 葉書의 《수호전》평점, 金聖嘆의 《수호전》비평, 毛宗崗의 《삼국지연의》비평, 李卓吾의 《서유기》평점, 張竹坡의 《금병매》평점 등이 대표적이다.

8) 《홍루몽》의 초기필사본 중에서 기록된 干支가 가장 이른 것은 《甲戌本》(1754)이며 《己卯本》(1759)과 《庚辰本》(1760)으로 이어지는데 서명은 여전히 《지연재증평석두기》로 쓰고 있다. 줄고 <홍루몽지평의 예술분석 연구>(《인문논총(한양대)》 제19집, 1990)참조.

평점비평본임을 강조하는 구절을 다음과 같이 넣고 있음을 볼 수 있다.

- ① 《崢霄館評定出像通俗演義魏忠賢小說斥奸書》
- ② 《新鐫出像通俗演義遼海丹忠錄》
- ③ 《崢霄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

이들 소설이 정소관에서 평점을 하고 선정한 통속소설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훗날 《지연재중평석두기》와 유사한 명명방식이 이미 여기서 시작되었던 것이다. ①번에서는 ③번에서는 崢霄館을 드러내고 있지만, ②번에서는 이를 생략하였고, ①번과 ②번에서는 모두 삽화를 갖추고 있는 出像을 강조하고 있지만 ③번에서는 이를 생략하였다. ①번에서는 ③번에서는 또 評定을 강조하였으나 ②번에서는 그 대신 새로 간행하였음을 강조하여 新鐫의 용어를 넣었다. 이들 소설의 여러 가지 특성이 이들 書名에서 드러난다고 하겠다.

현재 규장각본 《형세언》에서는 首卷이 없어서 원래의 삽화를 볼 수 없지만, 陳慶浩선생은 현재 《別本二刻拍案驚奇》(別刻)에 있는 총 17엽의 삽화 중에서 14엽(24쪽)의 그림이 원래의 《형세언》에 있었던 것임을 확인하고 영인본에 수록하였다. 조선시대 만들어진 《중국소설회모본》에도 한 폭의 《형세언》 삽화가 남아 전하고 있는데 약간의 구도가 달라져 있어 흥미롭다.⁹⁾

그동안 학계에서는 通俗演義의 의미가 대체로 역사소설에만 사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형세언》에도 이를 사용하고 있어서 의아하게 생각하였다. 하지만 지금 이 세 작품을 함께 고찰해 보면 ①번과 ②번이 시사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실이라고 할 수 있는 명말 魏忠賢이 專政하는 국내정치 문제, 遼海에서 後金과의 대외전쟁 문제를 통속적인 언어로 풀어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③번 《형세언》에서도 그와 동일한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형세언》은 화본소설을 담고 있는 단편소설 집이지만 분석에 따르면 대부분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이다. 작자

9) 삽화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본고 제3장에서 다룬다.

와 평자는 이러한 단편작품들로부터도 역사적 교훈을 얻고 윤리도덕의 회복을 위한 모범 혹은 반면교사로 삼고자 했던 것이다.

육운룡 형제가 만들어낸 책은 이들 소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책들에서 評選하고 있으며 수많은 서문 등을 통해 자신의 관점에서 선별하고 비평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書名에서 분명히 評選임을 밝힌 책은 다음과 같다.

- ④ 《翠娛閣評選行笈必攜》，崢霄館刻，卷首有陸雲龍序，丁允和序，이 책에는 <詩最>，<文奇>，<文韻>，<書雋>，<四六儷>，<小札簡>，<清語>，<格言>，<紀遊>，<詞菁> 등이 들어 있는데 각 편에 陸雲龍，陸人龍，陸敏樹의 서문이 있음.
- ⑤ 《翠娛閣評選皇明十六名家小品》，崢霄館彙刻，각 명가소품의 앞에 敍，序，引言 등을 陸雲龍이 씀，일부 丁允和의 서문.
- ⑥ 《翠娛閣評選明文歸初集》，崢霄館刊刻，당시의 政論과 時文을 수록.
- ⑦ 《翠娛閣評選明文奇艷》，崢霄館刊刻，陸雲龍과 陸敏樹 父子의 선평.
- ⑧ 《翠娛閣評選鍾伯敬先生合集》，陸雲龍의 서문.

이상에서 보듯이 소설이 아닌 이들 서적은 崢霄館에서 간행하면서 모두 「翠娛閣評選」이란 명칭을 동일하게 붙이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¹⁰⁾ 출판가 이면서 평점가로서의 육운룡의 신분이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겠다.

이밖에도 훨씬 많은 책을 간행했는데 ⑨ 崢霄館刊刻 《合刻繁露·太玄·大戴禮記》는 육운룡이 序評校輯하였고，⑩ 崢霄館刊刻 《禪眞後史》는 淸溪道人이 編次한 책이나，육운룡이 서문을 썼으며，⑪ 崢霄館評選 《皇明八大家集》 등이 있다. 또 육운룡 자신의 시문집인 ⑫ 《翠娛閣近言》이 있는데 당시 崢霄館 운영에 참가하던 여러 사람이 品評校訂을 한 책으로 가장 정교한 인쇄본이다. 역대시문집이나 자신의 시문뿐만 아니라 儒家경전도 간행하였음을 알 수

10) 胡蓮玉의 <陸雲龍生平考述>(《明清小說研究》 2001년 제3기)에 따르면, 評選의 이름을 가진 책으로 현존하지 않는 《翠娛閣評選張侗初先生小品》이 있다. 단 서지사항에 대한 근거는 미흡함.

있는데 특히 주자의 성리학 사상을 잘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서적도 간행한 바 있어 그의 사상적 경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⑬ 《近思錄》은 朱熹와 呂祖謙의 성리사상을 엮은 책이고, ⑭ 《近思錄集解》는 송나라 葉采가 근사록을 집해한 책이다.¹¹⁾ ⑮ 《翠娛閣增訂宗方城先生性理抄》도 제목으로 보면 성리학에 관한 책이다. 이 책은 顧克勇의 소개에 의하면 현재 浙江대학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史書에 宗方城에 관한 기록이 없어 혹시 方城宗의 오기가 아닌 가도 생각된다.¹²⁾

쟁소관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陸雲龍이 맡았지만 신서의 편찬을 위해 소재를 구하고 원고를 선평하며 교정 출판하는 데는 여러 사람이 참여하였다. 다음의 몇 사람이 중요한 인물이었다.

陸雲龍: 자는 雨侯, 육씨 집안의 중심인물로서 재실명은 翠娛閣이며, 書坊 崢霄館의 운영과 서적 간행, 서문과 평점을 도맡아서 처리했다. 그의 시문집 《翠娛閣近言》¹³⁾의 기록에 따르면 “공명을 포기하고 오로지 저술에 힘쓰며 도서 간행사업으로 생계를 삼았으며 또한 책을 통해 자신의 기개를 펼치고자 했다”고 한다.

陸人龍: 육운룡의 아우로서 간행할 서적의 소재를 수집하고 이를 가공하여 편찬하였다. 실제로 《요해단총록》과 《형세언》의 소재를 수집하고 가공하여 작품으로 만들어 소설사에 이름을 남겼다.

陸敏樹: 육운룡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간행할 책의 소재를 구하

11) 《明代版刻綜錄》(江蘇廣陵古籍出版社, 1983)이나 《中國古籍版刻辭典》(齊魯書社, 1999)에서 이 책을 인용하고 陸雲龍의 간본이라고 했으나 출판연도는 밝히지 않았는데, 胡蓮玉의 <陸雲龍生平考述> (2001)에서는 刊刻年代를 崇禎8년(1635)으로 적고 있다.

12) 胡蓮玉의 <陸雲龍生平考述> (2001)에서는 刊刻年代를 不詳이라고 했는데 顧克勇의 《陸雲龍兄弟研究》(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3)의 36쪽에서 이 책이 崇禎八年(1635)나왔다고 하고 현재 浙江대학 西溪캠퍼스도서관에 소장중임을 밝히고 있어 저자가 직접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北京의 한 古書경매옥션에 《性理要抄四卷》이 나왔는데 萬曆연간의 것으로 저자표시에 明代 方城宗撰으로 되어 있다. 宗方城은 연구자의 오기이거나, 陸雲龍간본의 오기일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요망됨.

13) 陸雲龍 자신의 詩文集 《翠娛閣近言》은 文三卷, 詩一卷으로 崇禎七年(1634)에 간행되었다. 丁九和 등의 평이 있고, 아들 육민수가 편찬에 많은 역할을 하였다.

고 선평과 교정의 일을 맡아 했다. 육운룡의 시문집 《翠娛閣近言》을 비롯하여 수종의 評選書를 내는데도 큰 역할을 하였다.

丁允和: 평소 서적 편찬의 취미를 갖고 있어 육운룡을 도와 《翠娛閣評選行笈必携》 등을 간행할 때 자료를 제공하고 選評과 서문을 쓰는데 참여하였다.

何偉然: 절강 仁和人으로 명말의 이름난 選評家이며 출판인이었으며 金陵(남경)에 梨雲館을 세워 《快書》, 《廣快書》 등의 책을 간행하여 영향을 끼쳤다. 육운룡의 책에 그의 시문이 수록되었고, 《翠娛閣評選十六名家小品》 등의 책의 선평에 참여하고 서문도 쓴 바 있다.

馮元仲: 절강 慈溪人으로 時文(과거시험을 위한 글)을 혐오하고 經史에 전념하며 山水를 좋아하고 詩를 잘 지었다. 육운룡과 시문을 교류하여 상호간에 서문을 써주고 글을 수록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육운룡의 선평에 참여한 인물들은 대체로 浙江 출신으로 평소 陸雲龍과 널리 교류하던 중류 문인들이었다.¹⁴⁾

2.2 陸雲龍과 陸人龍의 소설평론

陸雲龍이 운영하던 崢霄館에서 나온 소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세 가지다. 陸雲龍의 명의로 된 것이 하나이고 陸人龍의 이름을 쓴 것이 두 가지다. 모두 40회로 되어 있다. 이는 당시 앞서 나온 ‘三言二拍’의 전통을 따르는 체제라고 할 수 있다. 《魏忠賢小說斥奸書》에서는 「吳越草莽臣撰」(陸雲龍)으로 서명하였고, 《遼海丹忠錄》에서는 「平原孤憤生戲草」(陸人龍)라고 필명으로 署名하고 있는데 비하여, 《型世言》에서는 「錢塘陸人龍君翼甫演」으로 직접 편찬자

14) 胡蓮玉의 <陸雲龍生平考述>(2001)과 顧克勇의 <陸雲龍兄弟研究>(2010)에서 주요 인물의 관직과 生平, 陸雲龍과의 관계, 評選과 序文의 참여 등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의 성명과 자를 밝히고 있고, 서문과 평어의 경우에는 대부분 陸雲龍의 것으로 보이는 필명을 쓰고 있다. 이들 소설은 당시 소설편찬과 평점의 형식을 거의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① 《崢嶸館評定出像通俗演義魏忠賢小說斥奸書》，40回，崇禎元年(1628)，吳越草莽臣撰，鹽官木強人自敘，羅刹狂人敘，潁水赤愁<斥奸書說>，崢嶸主人<斥奸書凡例>。¹⁵⁾ 陸雲龍이 편찬하고 서문 등을 쓴 소설 작품이다. 陸雲龍의 筆名은 현재 《형세언》에 수많은 예가 보이는데, 그중에서 제1회 「鹽官木強人評」, 제2회 「海昌草莽臣評」, 제7회 「羅刹狂人評」, 제8회 「鹽官草莽臣評」, 제13회 「潁水赤愁評」 등의 署名에 다양하게 보이므로 이들 모두가 陸雲龍이 항상 사용하던 필명이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은 宦官 魏忠賢의 褻奪 출세와 私黨조직의 과정, 兵權을 쥐고 권력을 농단하는 내막을 그려낸 작품이다. 작자는 백성의 울분을 대신하여 강력한 원한을 보여주며 實錄을 쓰듯 그려내고 있다. 時事소설을 쓰는 작가의 경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는데 正統 儒家문인들이 文以載道의 형식을 보이듯이 글을 통해 자신의 사상과 주장을 넓히고자 힘쓰는 것이다.¹⁶⁾ 육운룡은 서문과 평어를 통해 위충현에 대한 비판과 원한을 마음껏 풀어내고 있는 것이다. 소설에서는 《明史》의 역사기록을 그대로 활용하되, 급박한 시간을 알리는 時態어휘와 독자의 감정을 움직일 수 있는 感性어휘를 섞어서 소설적 묘사를 함으로써 효과를 배가하고자 하였다.

② 《新鐫出像通俗演義遼海丹忠錄》，8卷40回，崇禎重午(1630)，平原孤憤生戲草，鐵崖熱腸人偶評。翠娛閣主人敘刊本. 육운룡의 서문에서 이 작품은 “此子

15) 《中國通俗小說總目提要》(中國文聯出版, 1990)의 <魏忠賢小說斥奸書>의 판본설명 참조.

16) 명말의 환관 魏忠賢의 전횡에 대한 주제로 쓴 소설은 陸雲龍의 《魏忠賢小說斥奸書》 외에도 《警世陰陽夢》(30回, 長安道人淸編次, 1628年刊), 《皇明中興聖烈傳》(50則, 西湖義士述, 서명을 <魏忠賢佚事>라고도 함, 崇禎刊), 《檣机閑評》(50回, 학계에선 작자를 李清으로 추정, 서명을 <明珠緣>이라고도 함)과 같은 작품이 더 있다. 최근 顧克勇은 《檣机閑評》의 李清작자설을 부정함(<陸雲龍兄弟研究> 58쪽-66쪽, <附: 檣机閑評作者非李清考> 참조)

弟丹忠所繇錄也”의 구절이 있어서 그의 아우가 편찬자임을 알 수 있었고, 이제 그의 아우가 바로 陸人龍임이 확인이 된 것이다. 육인룡이 편찬한 작품이 《형세언》과 더불어 《요해단총록》까지 두 편임을 알 수 있다. 平原孤憤生은 곧 陸人龍의 필명이고 鐵崖熱腸人은 육운룡의 필명이다. 목록 뒤에는 삽화 40폭이 있다. 권수에는 翠娛閣主人 陸雲龍의 서문이 있고 매회 백여 자 가량의 評語가 있다. 전체 내용은 명말 遼東의 전쟁을 그리고 있는데 제6회부터는 毛文龍의 애국적 충성을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책은 실제 역사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지극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뤄진 작품이다. 적어도 毛文龍이 피살되고 袁崇煥이 하옥된 이후 곧바로 집필을 시작하여 사건 종료와의 시간적 거리는 불과 2개월 남짓하여 역대 소설 중에서 가장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 당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時事문제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마치 오늘날 매스미디어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듯 소설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모문룡은 杭州출신이었고, 당시 항주의 모든 독자들이 이 사건의 귀추에 대해 매우 궁금한 상태였으므로 글쓰기를 생계로 삼는 문인으로서 육씨 형제는 촌음을 아껴 이 사건의 전모를 소설화하고 평점본으로 간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③ 《崢嶸館評定通俗演義型世言》，10卷40回，1632年前後，錢塘陸人龍君翼甫演，陸雲龍敍刊本. 육운룡은 아우 육인룡으로 하여금 당시 遼東전쟁의 시말을 묘사한 시사소설을 짓도록 한 이후 이번에는 당시 유행하던 화본소설의 형태로 짧은 이야기를 만들어 왕조말기에 폭넓게 번지고 있는 부조리하고 부도덕한 사회현상을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오래된 옛날이야기가 아니라, 當代에 전해지는 충절과 의리, 효성과 절개 등의 유가적 윤리도덕을 담은 다양한 이야기를 선별하도록 한 것은 시사소설을 지었던 민감한 현실참여의 정신과도 맞닿아 있다. 앞서 나온 馮夢龍의 ‘三言小說’의 경우와 같이 서명에 ‘言’字를 붙였지만 ‘세상의 틀이 되는 이야기’¹⁷⁾의 의미로 《형세언》이라 작명한 것은 분명

17) 《型世言》의 작자는 서명의 유래에 대해 따로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陸雲龍의 서문과 회말평에 각각 “樹型今世”(제3회)와 “以爲世型”(제1회)이란 구절이 들어있어 이 책의 명명 또한 그의 뜻에 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히 육육룡과 육인룡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담겨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육인룡은 이미 앞선 책에서 보여준 적극적 참여 방식으로 각 작품마다 일일이 서문을 쓰고, 다양한 필명으로 비평을 가하여 이 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데 이는 물론 책의 판매를 고려한 상업적 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형세언》 판본상의 특징 하나는 작자가 다른 소설과는 달리 직접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 각권마다 「錢塘陸人龍君翼」 등과 같이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분명하게 작자의 貫籍과 姓名, 字를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힌 예는 중국소설 편찬사에서는 극히 드문 예에 속한다.¹⁸⁾

다만 陸人龍은 자신의 이름아래 演, 輯, 演義, 撰, 編 등의 글자를 자유롭게 사용하여 그가 소설의 소재를 수집, 정리, 수정, 보완하여 묶어낸 사람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명말 이전의 백화소설 창작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있었던 현상이다. 중국문학사에서 소설은 역사의 보완적인 입장에서 발전해 왔으며 儒家的 「述而不作」¹⁹⁾ 전통을 이어받아 소설가들은 직접적으로 창작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馮夢龍 이후 화본소설의 편찬자들은 宋元代이래의 화본소설 혹은 문언소설을 재편집하거나, 백화로 개작하였고 당시 전해지는 이야기 소재를 구하여 새롭게 엮어내는 작업을 하였으니 이를 곧 당시의 소설 편찬이라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이를 근거로 엄격하게 적용하여 陸人龍은 “《형세언》의 編者일 뿐 作者라고 할 수 없다”고 단언했는데²⁰⁾ 그렇다면 마치 《형세언》에 수록된 40편의 작품 하나하나에 각각의 作者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

18) 명말에 이름을 드러낸 사례가 있다. 崇禎연간간본인 《西湖二集》에서 「武林濟川子清原甫纂」이라고 편찬자의 관직과 필명,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청원은 곧 周清原이다. 육인룡의 경우도 역시 항주(武林, 錢塘)사람으로서 당시 이처럼 대담한 분위기에 동참한 것이다.

19) 孔子가 문헌정리를 하면서 말한 “述而不作, 信而好古”(《論語·述而》)에서 유래되었으며 훗날 문인들은 이를 본받아 스스로 창작함을 매우 꺼려 했다. 허구를 꾸며야 하는 소설의 발달에 장애가 되었다. 朱子의 《論語集註》에서는 述은 옛것을 전하는 것(傳舊)으로 作은 새롭게 만드는 것(創始)으로 풀었다. 중국문학의 복고적인 성향이 여기서 비롯되었다.

20) 顧克勇, 蔚然 <陸人龍是의 編者, 而非作者考辨> (《明清小說研究》 2003年第3期)에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육인룡의 作者설을 반대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물론 그들이 陳遼의 <型世言研究三題> (《杭州大學學報》 1994年年 第1期)에 나오는 “我國第一部由文人獨立創作的短篇小說集是型世言(중국에서 처음으로 문인에 의해 독립적인 창작으로 나온 단편소설집이 곧 형세언이다)”라는 구절을 반박하기 위해 쓴 글임을 이해하는 바이지만, 화본소설집의 편찬과정을 이해하면 작자는 곧 편찬자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화본소설집의 작자는 곧 편찬자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崢霄館에서 評定한 通俗演義로서 《형세언》은 그들의 마지막 소설편찬이 되었다.

崇禎 6年(1633)에 崢霄館에서 간행된 《翠娛閣評選皇明十六名家小品》의 陸雲龍 總序에 원고모집 공고(徵文啓事)가 있는데 그간에 나온 책들의 후속 작업을 위한 것으로 《型世言》 二集이 포함되어 있었다. 징문계사의 마지막 간행예정서명과 징문의 범위는 “刊型世言二集, 徵海內異聞”과 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형세언》 40회를 간행한 이후에 다시 海內的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수집하여 《型世言》 二集의 편찬을 준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¹⁾ 이는 마치 풍몽룡이나 능몽초가 삼언이박을 연이어 간행한 것과 같은 형태로 전편이 성공적일 경우에 곧이어 후속편을 만들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3. 《형세언》의 평자와 비평 체계

《형세언》은 각 회마다 序文의 엄격한 체계를 갖추고 매우 다양한 제목과 署名으로 평자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데 이는 崢霄館의 운영주인 육운룡의 독특한 편찬 습관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없어진 卷首에서는 총서와 목록, 삽화 등이 완전하게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육운룡의 서적 편찬에 나타나는 형식적인 체계는 명말에 널리 유행하던 출판 관행을 따르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정되며 치열한 출판 경쟁 속에서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독자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도 이해될 수 있다.

21) 徵文啓事는 崇禎4年(1631)과 崇禎6年(1633)에 공지되었다. 《翠娛閣評選行笈必携》(1631)에서는 단지 범위를 밝혀 ‘徵玉堂誥勅’, ‘徵經世奏議’, ‘徵大匠詩文’, ‘徵名公啓札’, ‘徵名賢行實’, ‘徵宇內異聞’ 등으로 했는데 2년 뒤에 나온 《翠娛閣評選皇明十六名家小品》(1633)에서는 간행예정 서명을 밝히고 그 범위를 부기했다. 서명은 ‘刊行笈二集’, ‘刊廣輿續集’, ‘刊續西湖志’, ‘刊明文歸’, ‘刊皇明百家詩文’, ‘刊行笈別集’과 ‘刊型世言二集’ 등이다. 陳慶浩 <型世言校注本序>(《型世言》 卷頭, 新華出版社, 1999) 참조.

3.1 서문과 평자의 형식

《型世言》의 간행자인 陸雲龍은 이 책에서 독자들에게 강조하고자 하는 풍속교화의 내용을 더욱 드러내고자 주로 序文과 回末批評, 그리고 매 작품속의 評點(주로 眉批)을 적극 이용하였다.

《형세언》은 현재 규장각에 본문만 11책으로 장정되어 있어 원래 12책으로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지만, 사실은 總序와 目錄, 插畫 등을 엮은 권수의 1책을 제외하고 본문은 10책이었던 것을 11책으로 재장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²²⁾

각 회 의 첫머리에는 반드시 小序가 한편씩 수록되어 있는데 각 회마다 약간씩은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다. 또 回末에도 評者의 다양한 필명의 형태로 비평이 열거되어 있으며 자신의 주장과 더불어 典故를 인용하고 있다. 이에 각 회별 상황을 小序의 名稱과 署名, 날인된 인장의 印文, 作者와 評者의 署名, 回末評의 評者 등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제1회 <叙>, 翠娛閣主人撰.(行書) [印] 【陸雲龍印】, 【雨侯氏】. 錢塘陸人龍君翼甫演, 鹽官木強人評. [正文] 回末詩(古風)……雨侯曰……, 木強人曰(嘗讀世說)……。
- 제2회 <叙>, 翠娛閣主人題.(行書) [印] 【從龍】. 錢塘君翼陸人龍輯, 海昌草莽臣評. [正文] 張鳳翼曰……雨侯曰……, 草莽臣曰……。
- 제3회 <小引>, 翠娛閣主人識.(楷書) [印] 【雅有至性】. 錢塘陸人龍演義, 三吳至性人品驚. [正文] 雨侯曰……。
- 제4회 (無題), 翠娛閣主人識.(隸書) [印] 【史氏平章】. 錢塘陸君翼甫演義, 括蒼女史氏批評. [正文] 雨侯曰……又曰(卓老道)。
- 제5회 <小叙>, 翠娛閣主人.(楷書) [印] 【殺風景樓】. 錢塘陸君翼演義, 燕市酒徒評. [正文] 雨侯曰……。
- 제6회 <小引>, 翠娛閣主人書.(行書) [印] 【文壇□帥】. 錢塘陸人龍君翼甫輯, 秦淮女中丈夫評. [正文] 李卓吾曰……, 雨侯曰……。
- 제7회 <題詞>, 翠娛閣主人題.(行書) [印] 【華酒□家】. 錢塘君人龍演, 羅刹狂

22) 陳慶浩<導言>참조, 《型世言》影印本, 臺灣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1992.

- 人評. [正文] 雨侯曰(嘗讀唐書).....。
- 제8회 <叙>, 翠娛閣主人識.(行書) [印] 【草莽臣】. 錢塘陸人龍撰, 鹽官草莽臣評. [正文] 雨侯曰.....。
- 제9회 (無題, 畫印), 翠娛閣主人撰.(草書) [印] 【雨侯】, 【語有提撕】. 錢塘陸君翼演義, 魯國奇男子評. [正文] 雨侯曰....., 魯國男子曰.....。
- 제10회 <叙>, 翠娛閣主人題.(楷書) [印] 【獨笑齋】. 錢塘陸人龍君翼甫輯, 武林解詩嬾評. [正文] 雨侯曰.....。
- 제11회 <叙>, 翠娛閣主人題.(楷書) [印] 【乘勝林樊】. 錢塘陸君翼編, 虎丘寡情人評. [正文] 雨侯曰.....。
- 제12회 <小引>, 翠娛閣主人題.(草書) [印] 【有筆如椽】. 錢塘陸君翼演義, 匡廬石隱品評. [正文] 雨侯曰....., 石隱曰.....。
- 제13회 <序>, 翠娛閣主人題.(草書) [印] 【雲龍】. 【尚口千古】. 錢塘陸君翼演, 潁水赤愁評. [正文] 雨侯曰....., 赤愁曰.....。[後人評: 淡軒²³⁾
- 제14회 <引>²⁴⁾, (楷書) [印] 【翠娛閣】. 錢塘陸人龍演, 秣陵不易才評. [正文] 雨侯曰.....。
- 제15회 <題詞>²⁵⁾, 翠娛閣主人識.(草書) [印] 【方回後身】.²⁶⁾ 錢塘陸人龍演, 魯國執御流評. [正文] 雨侯曰.....。
- 제16회 <題詞>, 翠娛閣主人識.(行書) [印] 【舌織筆耕】. 錢塘陸人龍演, 錦江浣花人評. [正文] 雨侯曰....., 又曰(予生母).....。
- 제17회 <引>, 翠娛閣主人題.(草書) [印] 【雨侯父】. 錢塘陸君翼演, 崆峒茹芝人評. [正文] 雨侯曰.....。
- 제18회 <題詞>, 翠娛閣主人題.(楷書) [印] 【水蒼然居】. 錢塘陸君翼輯, 茗水采菱人評. [正文] 雨侯曰.....。
- 제19회 <序>, 翠娛閣主人識.(楷書) [印] 【現身說法生】. 錢塘陸人龍編, 閩海奇人評. [正文] 雨侯曰.....。
- 제20회 <題詞>, 翠娛閣主人撰.(行書) [印] 【一片熱心】. 錢塘陸君翼演, 君山老人評. [正文] 雨侯曰.....。
- 제21회 (無題), 翠娛閣主人.(行書) [印] 【迷迷人士】. 錢塘陸君翼演, 江右明眼人評. [正文] 雨侯曰.....。

23) 제13회말 後人筆寫의 雙行評語: “兄弟急亂, 朋友救難, 乃其向之, 而劉媪之勸夫伐叔, 誠千古罕匹, 聖女愛夫之心女子最切, 而但以義處事, 可謂女史中第一人物了. 淡軒評, 紅苧園燭夜澀□(嘆).” 陳慶浩선생은 朝鮮독자의 評으로 추정함.

24) <引>字의 下段에 後人筆寫로 “翠娛閣主人題”가 쓰임, 引言말미엔 공간 없어 서명 못함.

25) 제15회 「題詞」아래에는 後人筆寫로 “萬曆癸巳春題”의 註가 있음. 萬曆癸巳年은 1593년이므로 이 책의 간행시기(1632전후)와는 약 40년의 차이가 있음.

26) 제15회 권두하단에 後人筆寫의 署名인 “淡軒評” 3자가 있으나 실제 평어는 없음.

- 제22회 <引>, 翠娛閣主人題.(楷書) [印] 【泉石高旨】. 錢塘陸君翼演, 濮陽仙吏評. [正文] 雨侯曰.....。
- 제23회 <題辭>, 翠娛閣主人書.(楷書) [印] 【諠薄雲天】. 錢塘陸人龍君翼甫編, 吳淞仙吏評. [正文] 殷中尊曰....., 雨侯曰.....。
- 제24회 <序>, 翠娛閣主人題.(行書) [印] 【雨侯】. 錢塘陸君翼演, 五羊黃鬚兒評. [正文] 雨侯曰.....。
- 제25회 <題詞>, 翠娛閣主人題.(草書) [印] 【雲龍】, 【一字矯如】. 錢塘陸人龍演, 海昌煙波叟評. [正文] 雨侯曰.....。
- 제26회 <小引>, 翠娛閣主人撰.(行書) [印] 【雨侯氏】, 【如口言亦佳】. 錢塘陸君翼編, 古婺冷眼郎評. [正文] 雨侯曰....., 冷眼郎曰.....。
- 제27회 <序>, 翠娛閣主人識.(草書) [印] 【雨侯】. 錢塘陸人龍君翼甫演, 蘭亭拙居士評. [正文] 雨侯曰.....。
- 제28회 <小引>, 翠娛閣主人撰.(楷書) [印] 【雨侯】, 【陸雲龍印】. 錢塘陸人龍演, 吳興逃名客評. [正文] 雨侯曰.....。
- 제29회 <題詞>, 翠娛閣主人撰.(行書). [印] 【劍斬邪魔】. 錢塘陸人龍演, 八桂說鬼君評. [正文] 雨侯曰.....。
- 제30회 <序>, 翠娛閣主人題.(行書) [印] 【秦廷吏】. 錢塘陸君翼輯, 江海迂儒評. [正文] 雨侯曰.....。
- 제31회 <叙>, 翠娛閣主人識.(楷書) [印] 【雲龍】, 【有情痴】. 錢塘陸人龍輯, 毘陵逸老評. [正文] 雨侯曰.....。
- 제32회 <題詞>, 翠娛閣主人撰.(楷書) [印] 【吾愛吾鼎】. 錢塘陸人龍撰, 彭城髯奴評. [正文] 雨侯曰.....。
- 제33회 <叙>, 翠娛閣主人題.(楷書) [印] 【霹靂手】. 錢塘陸人龍演, 吳淞浪跡翁評. [正文] 雨侯曰.....。
- 제34회 <叙>, 翠娛閣主人識.(楷書) [印] 【雨侯】, 【亦顛】. 錢塘陸人龍輯, 龍沙地行仙評. [正文] 雨侯曰.....。
- 제35회 <引>, 翠娛閣主人題.(楷書) [印] 【陸雲龍印】, 【頑頭陀】. 錢塘陸君翼演, 祇林開士評. [正文] 雨侯曰.....。
- 제36회 <序>, 翠娛閣主人題.(楷書) [印] 【雨侯】, 【簿書狂】. 錢塘陸君翼演, 東甌悠悠者評. [正文] 雨侯曰.....。
- 제37회 <小引>, 翠娛閣主人識.(草書) [印] 【雨侯】, 【口爲爾崢口】. 錢塘陸君翼演, 河西衣葛備評. [正文] 雨侯曰.....。
- 제38회 <題詞>, 翠娛閣主人撰.(隸書) [印] 【雲中龍】, 【文妖】. 錢塘陸君翼輯, 荊國研田農評. [正文] 雨侯曰.....。
- 제39회 <序>, 翠娛閣主人.(楷書) [印] 【雲龍】, 【雨侯父】. 錢塘陸人龍演, 樵李

斬蛇客評. [正文] 雨侯曰.....。

제40회 <叙>, 翠娛閣主人撰.(草書) [印] 【雨侯】. 【文魔】. 錢塘陸君翼輯, 芙蓉城主評. [正文] 雨侯曰.....。

이상에서 보듯이 전체 40편의 작품마다 고르게 각 편의 序文을 남기고 있는데 각각 序, 敍, 引, 小引, 題詞, 引言 등의 명칭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序文의 作者는 한결같이 翠娛閣主人으로 동일하게 밝히고 있고 다만 끝에 撰, 題, 識, 書 등으로만 다르게 표현했을 뿐이다. 취오각주인은 바로 陸雲龍이다. 서문은 모두 寫刻한 것으로 붓글씨의 다양한 서체를 사용하였는데 양으로 보면 楷書(17편)가 가장 많고, 이어서 行書(12편)와 草書(9편) 그리고 隸書(2편)의 순이다. 이러한 방식은 소설 간행본의 전범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序文의 말미에 찍힌 印章의 印文 구절이 또한 흥미롭다. 陸雲龍 자신이 사용하는 인장이어서 기본적으로 그의 이름인 「陸雲龍印」 또는 「雲龍」, 「從龍」, 「雲中龍」 등(9번)과 그의 字인 「雨侯」 또는 「雨侯氏」, 「雨侯父」 등(총 12번)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었고, 그의 재실명인 「翠娛閣」(1번)도 한 차례 사용되었다. 개별 작품의 비평자로서 제2회(海昌草莽臣評)와 제8회(鹽官草莽臣)에서 각각 사용된 필명을 반영하여 「草莽臣」이란 인문이 1번 사용되었고, 제3회에서 사용된 필명 「三吳至性人品驚」을 반영하여 「雅有至性」의 인문이 1번 사용되었다. 제4회에서 사용된 「括蒼女史氏」의 필명을 반영하여 「史氏平章」의 인문도 사용되었다. 筆名과 印文 등은 해당 작품의 내용과 주제, 평자의 필명과도 여러 가지 관계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제3회 「悍婦計去孀姑, 孝子生還老母」에서는 한 효자가 쫓겨난 모친을 되찾아오면서 고약한 아내를 쫓아 보내서 모친과 바꾸었다는 내용을 그린 것인데 효자의 지극한 성품을 드러내고자 평자의 筆名을 「三吳至性人」으로 했고, 印文은 「雅有至性」으로 만들었다. 또 제4회 「寸心遠格神明, 片肝頓蘇祖母」에서는 권두에 평자의 서명을 「蒼括女史氏批評」이라고 했는데 이에 맞추어 印文은 「史氏之章」으로 지었고, 제8회 「矢智終成智, 盟忠自得忠」에서는 평자의 서명을 「鹽官草莽臣」으로 하고 인장에서도 「草莽臣」을 그대로 쓰고 있다. 제

30회의 「張繼良巧竊篆, 曾司訓計完璧」에서는 何知縣과 그의 총애를 받는 門子 (관청의 급사) 張繼良 사이의 얽히고설킨 고사인데, 서문의 입장에는 「秦廷吏」라는 인물이 새겨져 있다. 제32회의 「三狷空作寄郵, 一鼎終歸故主」에서는 家寶로 내려오던 寶鼎이 우여곡절을 거쳐 다시 주인공에게 돌아온 사연을 그린 것인데 입장은 「吾愛吾鼎」으로 새겼다. 제33회의 「八兩銀殺二命, 一聲雷誅七凶」에서는 이웃의 악당이 여덟 냥의 돈 때문에 살인을 하자 벼락으로 주살했다는 내용인데 입장에는 「霹靂手」라고 새겼다. 제34회의 「奇顛清俗累, 仙術動朝廷」에서는 周顛화상의 행적을 그리고 있는데, 이러한 내용에 맞추어 평자의 서명을 「龍沙地行仙」으로, 입장은 「亦顛」으로 만들었다. 제35회의 「前世怨徐文伏罪, 兩生冤無垢復仇」에서는 無垢화상의 환생을 그린 것인데, 내용에 걸맞게 평자의 서명은 「祇林開土」로 하고 입장은 「頑頭陀」로 만들었다. 이러한 방식은 소설의 편찬자나 비평가들의 일반적인 관습으로 자신들의 理想과 趣向을 자유분방하게 만들어내는 文字遊戲의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평자의 필명을 좀 더 전면적으로 살펴보자. 우선 《형세언》의 간행자이면서 서문과 평점을 담당했던 육운룡은 이 책에서 각 편마다 하나씩 총 40종의 필명을 남기고 있는데 명명방식과 유래를 통해서 그의 사상과 문학관을 살피는데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그의 필명 중에서 이미 이전에 《魏忠賢小說斥奸書》에서 사용되던 것이 다수 있다. 육운룡이 직접 엮은 책으로 밝히고 있는 그 책에는 「吳越草莽臣撰」, 「鹽官木強人自敘」, 「羅刹狂人敘」, 「潁水赤慙」의 <斥奸書說>, 崢霄主人의 <斥奸書凡例> 등과 같은 필명이 나오는데 지금 「吳越草莽臣」과 《형세언》의 「海昌草莽臣」(2), 「鹽官草莽臣」(8)이 모두 재야인사로서 국사에 지극한 관심과 충정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같은 계열이고, 나머지 이름도 《형세언》에서 「鹽官木強人」(1), 「羅刹狂人」(7), 「潁水赤慙」(13) 등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쓰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필명은 육운룡이 작품을 만들면서 지속적으로 새로 만들어 사용하여 왔음을 알 수 있으며, 각 편의 새로운 이름도 또한 작품의 내용에 빚대어 만들어졌다고 하겠

다. 필명은 우선 출신 지역을 나타내는 말과 인물의 특징을 보여주는 말로 구성되었다.

제1회 鹽官木强人(1)과 鹽官草莽臣(8)의 염관은 海鹽, 곧 海寧을 지칭한다. 육운룡의 원적은 海寧이며 그의 조부 때 海寧에서 錢塘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²⁷⁾ 《형세언》에서 작자서명으로 錢塘陸人龍의 이름을 분명히 사용하고 있으나 평자의 필명에서는 원적을 은연중에 드러내곤 자 이처럼 사용한 것이며 이미 《魏忠賢小說斥奸書》에서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필명이기도 하다. 「吳越草莽臣」에서 오월은 五代十國시대의 吳越國에서 온 것으로 당시 嘉興에 開元府를 설치하고 嘉興, 海鹽, 華亭의 3현을 관장했다. 草莽臣은 재야에 있으면서 國事に 깊이 관심을 가진 인물임을 자처한 것이다.

제2회 海昌草莽臣. 해창도 또한 嘉興府 海鹽을 이른다. 여기의 초망신도의 의미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뒤에 나오는 海昌煙波叟(25)에도 해창은 곧 해염이다. 해염은 곧 앞의 염관과 비슷한 지역을 이름이다.

제3회 三吳至性人品鷺. 三吳는 고대의 지명으로 지칭하는 바가 일정치 않으며 대체로 太湖의 동쪽과 남쪽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다른 필명에서는 대부분 평, 비평 등의 구절을 썼는데 이곳에서만 특히 品鷺이란 용어를 사용하여 주목된다. 이는 즉 품평이란 의미다.

제4회 括蒼女史氏. 괘창은 고지명으로 현재 浙江의 麗水, 泰州일대를 말한다. 육운룡이 여성의 입장에서 평자의 필명을 만든 것도 특기할 사항이다. 뒤에 나오는 秦淮女中丈夫나 武林解詩媪 등이 명확하게 여성으로 자임한 경우다.

제5회 燕市酒徒. 燕은 곧 지금의 北京지역이다. 진시황의 폭정에 비분강개함을 드러내는 연나라 시장의 술꾼 荊軻를 상징한다. 기울어지는 나라의 운명 앞에서 비분강개한 마음을 가진 육운룡의 필명으로서 의미

27) 胡蓮玉, <陸雲龍生平考述>(《明清小說研究》 2001年第3期) 참조.

가 있다.

제6회 秦淮女中丈夫. 秦淮河는 남경에 있으며 진회팔염이 유명하다.

제7회 羅刹狂人. 나찰은 地獄에서 죄인을 다루는 食人鬼인데 염라대왕의 수하로서 세상의 是是非非를 평하려는 것이다.

제9회 魯國奇男子. 노국은 山東에 있다. 奇男子는 즉 好漢의 의미다. 山東好漢은 세상의 불의에 의연히 항거하는 사나이의 氣慨를 담고 있다.

제10회 武林解詩媼. 무림은 항주다. 시를 지을 줄 안다면 유식한 여성이다. 나이든 여성은 세상 물정을 누구보다 잘 안다. 평자는 항주사람으로서 이런 여성의 입장에 서 있는 것이다.

제11회 虎丘寡情人. 호구는 蘇州에 있다. 과정인은 곧 薄情人이다.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大義와 윤리도덕의 원칙에만 충실한 사람이다.

제12회 匡廬石隱. 광러산은 바로 江西의 廬山이다. 여산의 돌 속에 은둔한 은자의 입장에서 비평한 것이다.

제13회 潁水赤愁. 영수는 지금의 潁河로 하남 嵩山에서 발원하여 淮河로 들어간다. 赤愁은 馮夢龍이 사용한 墨愁齋를 염두에 두고 만든 필명일 것이다. 묵감이 墨筆을 쓰는 편찬자 스스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 라면 적감은 朱筆을 쓰는 비평가 스스로 어리석고 천진함을 말하려는 것이다.

제14회 秣陵不易才. 말릉은 고대 南京을 지칭하는 말이다. 不易才는 불변하는 재주를 말한다. 《清夜鐘》에는 미원주인의 서문 뒤에 있는 두 인장중의 하나는 江南不易才인데, 여기서 《형세언》의 평자는 이에 대응하여 秣陵不易才로 쓴 것으로 보인다.

제15회 魯國執御流. 산동의 노나라는 공맹 유학의 발상지이므로 유가적 윤리도덕을 강조할 때 거론한다. 執御流는 세상의 저속한 흐름을 잡고 통제한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제16회 錦江浣花人. 금강은 四川의 成都를 대표한다. 성도를 나타내는 芙蓉

城主(40)도 있다. 浣花人은 꽃을 물에 씻는 사람.

제17회 崆峒茹芝人. 공동은 黃帝가 廣成子에게 道를 물었던 곳이다. 河南 汝州에 광성자가 살았다고 한다. 여지인은 부드러운 芝草같은 사람의 뜻.

제18회 苕水采菱人. 天目山에서 발원하여 湖州를 경유하여 太湖로 들어가는 苕溪를 말한다. 채릉인은 곧 마음을 따는 사람.

제19회 閩海奇人. 민해는 福建省의 바다를 의미한다. 복건의 기인한 인물.

제20회 君山老人. 군산은 湖南省 洞庭湖에 있는 섬이다. 여기서 노인은 지혜로운 사람을 지칭한다.

제21회 江右明眼人. 강우는 江西지방의 별칭이다. 명안인은 눈이 밝은 識見이 있는 人物임을 자처한 것이다.

제22회 濮陽仙吏. 하남성 濮陽을 말한다. 선리는 신선세계의 벼슬아치.

제23회 吳淞仙吏. 上海를 경유하는 오송강을 말한다.

제24회 五羊黃鬚兒. 오양은 廣東省 廣州를 상징하는 말이다.

제25회 海昌煙波叟. 해창은 海鹽, 연파수는 안개 자욱한 물가를 거니는 노인.

제26회 古婺冷眼郎. 절강 金華를 婺州라고 했다. 냉안랑은 차갑고 냉정하게 세상을 보는 사나이.

제27회 蘭亭拙居士. 절강 紹興의 남쪽에 난정이 있다. 王羲之 등이 모여 시를 짓고 蘭亭集을 만들었다. 왕희지의 蘭亭集序가 서예로 유명하다. 즐거사는 어리석고 우둔한 인물.

제28회 吳興逃名客. 오흥은 지금 湖州市에 있다. 도명객은 세속적 명성을 추구하지 않고 탈속한 인물.

제29회 八桂說鬼君. 팔계는 廣西의 異稱으로 불리는 말이다. 鬼話는 터무니 없는 말, 허구가 섞인 소설 등을 말하므로 설귀군은 바로 그러한 소설가와 비평가를 말한다.

제30회 江海迂儒. 江海는 폭넓은 지역개념이면서 江湖와 같이 일반명사로도 쓰이지 않나 생각된다. 迂儒는 세상물정에 어둡고 융통성 없는 선비.

제31회 毘陵逸老. 비릉은 강소성 常州의 다른 이름이다. 逸老是 은둔한 노인.

- 제32회 彭城髻奴. 팽성은 즉 강소성 徐州다. 염노는 구렛나루가 멋진 하인.
- 제33회 吳淞浪跡翁. 오송은 앞서 나왔듯이 上海의 일부 지명이다. 낭적옹은 정처없이 방랑하며 다니는 노인.
- 제34회 龍沙地行仙. 용사는 未詳, 지행선은 땅을 다니는 신선이다.
- 제35회 祇林開士. 지림은 未詳. 開士는菩薩이나 僧侶의 다른 이름이다.
- 제36회 東甌悠悠者. 절강성 永嘉지역. 유유자는 한적하고 여유만만한 사람.
- 제37회 河西衣葛傭. 황하의 서쪽, 陝西나 甘肅을 말함. 갈포 옷을 입은 일꾼.
- 제38회 荊國研田農. 형국은 楚나라 별칭. 湖北 일대. 연전농은 벼루를 통해 농사꾼처럼 문필생활을 하는 선비를 말한다.
- 제39회 携李斬蛇客. 携李는 未詳. 《春秋》杜預注에 “嘉興縣서남의 이성은 좋은 오얏의 산출로 이름 높다”고 했는데 지금의 백도향이다. 전설에 따르면 范蠡가 西施를 데리고 嘉興을 지날 때 오얏을 따먹고 해갈을 하였다고 한다. 여기서 携李(zuili)는 곧 가흥을 지칭한다고 본다. 참사는 秦나라를 상징하는 白蛇를 斬하고 漢을 세운 劉邦의 고사에서 음.
- 제40회 芙蓉城主. 부용성은 四川省 成都를 지칭한다.

이상을 종합하면, 평자의 署名은 대부분 古地名을 이용한 籍貫의 형태와 小說비평을 담당한 자로서의 理想과 趣向을 나타내는 용어를 선택하여 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별 작품의 내용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평자가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새롭게 명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28) 陸雲龍의 독특한 筆名에 대한 유래를 조사하던 중 특기할만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지난 2000년 內蒙古人民出版社에서 간행된 <明清艷情小說民間收藏古本> 시리즈를 보면 다양한 書名에 陸雲龍이 《형세언》에서 사용했던 필명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諧嬌艷>은 三吳至性人 지, <青鸞舞>은 海昌草莽臣 지, <羞芳情>은 匡廬石隱人 지, <春透海棠>은 羅刹狂人 지, <蝶舞春>은 翠娛閣主人 지, <藏春閣>은 明. 武林解詩 媼人 찬으로 되어 있고, 또 <鏡月齋民間文學研究室藏本>이라고 이름붙인 <玉開蓮>은 明. 虎丘寡情人 찬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저자명을 쓰게 된 것이 현대 출판업자의 임의적인 행위인지, 또 개별 작품의 내용과 《형세언》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향후 재고를 요한다. 이른바 評點소설에 대한 출판 상황의 혼란상은古今이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본문의 내용이 끝나는 회말평에는 당시 名人의 典故를 인용하여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고(張鳳翼曰, 李卓吾曰, 殷中尊曰), 시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다(古風曰). 회말평의 경우는 거의 예외 없이 일단 '雨侯曰'로 통일하고 있으며 또 다른 서명을 추가하는 경우는 회전의 평자명을 다시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어서(木強人曰, 魯國男子曰, 赤慙曰), 결국 한차례 더 비평을 가한 셈이 된다. 이들 대부분의 평자는 이 책의 평점을 담당한 陸雲龍의 필명이다.

한편 《형세언》의 편찬을 담당했던 陸人龍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錢塘陸人龍 혹은 陸君翼으로 통일되어 있으며 다만 편찬의 의미를 나타내는 演, 輯, 撰, 演義 등의 글자를 뒤에 보태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이 책이 편찬자 육인룡에 의해서 수집, 정리되는 과정에서 역사적, 시사적 소재를 소설적으로 풀어내거나 개찬하였음을 의미한다. 육인룡의 필명으로 확인된 것은 《형세언》에 앞서 만들어진 《遼海丹忠錄》에서 사용한 平原孤憤生이 있다. 평원은 오늘날 山東 濟南근처의 德州에 있다. 고분은 《한비자》의 편명이기도 하지만 세상에 용납되지 않음을 분개하는 사람이란 뜻으로 쓰여진 것이다.

3.2 미비와 후인의 평어

앞서 《형세언》 각 회별 작품의 전후에 있는 小序와 回末評의 체계를 주로 살펴보았거니와, 여기서는 작품의 본문에 포함된 평점에 대해 眉批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전체적인 규모와 대략적인 현황을 알기 위해 우선 각 회 眉批總數와 평어의 最短 및 最長의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²⁹⁾

제1회: 眉批, 共39則, 如“好父”, “一看就沒決然光景, 忠臣是學人的麼? 要學, 史

29) 여기서는 별도의 주석이 달려있는 陳慶浩교점본(新華出版社, 1999)을 기준으로 삼았다. 교감본에 따라서 眉批의 숫자가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한 則을 두셋으로 나누어 본 경우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冊上也有無數。

- 제2회: 眉批, 共29則, 如“極態”, “還畢竟是公道人說話”。
- 제3회: 眉批, 共53則, 如“醒豁”, “不孝者不見己不是, 但見人不是”。
- 제4회: 眉批, 共29則, 如“慙”, “奇情奇事, 讀之舌矯而不放下, 聞之口咋而不能言, 惟有敬服其孝而已”。
- 제5회: 眉批, 共36則, 如“爽快”, “怕老婆的供狀, 却在審人命時遞出”。
- 제6회: 眉批, 共52則, 如“俏”, “捏不著, 詐不錢多, 絕勝一味詐錢的”。
- 제7회: 眉批, 共38則, 如“是”, “語有雲, 伍胥之髑髏不下苧夢之姬, 適爲吳娛”。
- 제8회: 眉批, 共21則, 如“神識”, “未出草茅, 其品已定”。
- 제9회: 眉批, 共29則, 如“樂”, “安得此夜又將世上不義如崔科, 反覆如張老三、薄情如莊經歷者, 盡挖其心肝而食之”。
- 제10회: 眉批, 共32則, 如“權論”, “沒於三十三年十月, 又應小春”。
- 제11회: 眉批, 共52則, 如“趣”, “羞惡之心人皆有之”。
- 제12회: 眉批, 共20則, 如“好度”, “忽作北音, 入情入趣。看官勿得草草”。
- 제13회: 眉批, 共22則, 如“狠心”, “先贊師母, 後薦爾穀, 透出墳房爲娶妾根本。張儀之舌, 蘇秦之口”。
- 제14회: 眉批, 共19則, 如“可笑”, “義能急友, 智能明決, 只數言道破脫公情事, 孟端誼人傑”。
- 제15회: 眉批, 共29則, 如“格言”, “做好做歹, 語語尖冷, 世人能於此中識破□□便是□□人一□□人活□□”。
- 제16회: 眉批, 共19則, 如“惡惡”, “家庭之變多起於旁人唆聳, 而吳氏任耳邊瑣瑣而不聽, 眞賢良之神聖矣”。
- 제17회: 眉批, 共26則, 如“惡”, “有膽有識, 所謂看定做得來, 而不擾亂於外, 內不專制也”。
- 제18회: 眉批, 共32則, 如“可憐”, “如今一中舉, 沒女兒也收聘禮, 是如此”。
- 제19회: 眉批, 共26則, 如“趣”, “極仁, 不知者必迂之矣”。
- 제20회: 眉批, 共27則, 如“妙”, “剝假山人之面皮, 正所以振山人之雅韻”。
- 제21회: 眉批, 共28則, 如“趣”, “父嗜酒而母嗜懶, 稟其精氣而生者, 安得幽閑貞靜乎?”。
- 제22회: 眉批, 共24則, 如“省着”, “昔賊謀時曰‘財從險來’, 今一網打盡, 止有一險字, 財在何處?”。
- 제23회: 眉批, 共18則, 如“惡”, “虎作威必□伏意狠□□必哀”。
- 제24회: 眉批, 共17則, 如“妙妙”, “西虜不能制, 奴酋又不受我制, 誰謂可以夷攻夷也?”。
- 제25회: 眉批, 共17則, 如“惑”, “你也有意, 莫來推別人”。

- 제26회: 眉批, 共40則, 如“妙”, “他道是會討便宜, 誰知究竟不會占得”.
- 제27회: 眉批, 共69則, 如“妙喻”, “或先或後, 文情煞是錯綜”.
- 제28회: 眉批, 共27則, 如“趣”, “所謂大派頭, 若一說施舍, 人便疑了”.
- 제29회: 眉批, 共23則, 如“妙品”, “敘出房子曲折似閑, 實與後徐公子處相關”.
- 제30회: 眉批, 共30則, 如“溺處”, “只說鄉官不是, 知縣自見”.
- 제31회: 眉批, 共32則, 如“相訣”, “似此婦人, 那得棄之”.
- 제32회: 眉批, 共23則, 如“快語”, “富貴須與事, 可勝長歎”.
- 제33회: 眉批, 共21則, 如“奇”, “鄉下刁民實是如此”.
- 제34회: 眉批, 共17則, 如“趣”, “說與衆人人不識”.
- 제35회: 眉批, 共17則, 如“妙”, “如今要錢的, 原也不管妻子”.
- 제36회: 眉批, 共23則, 如“奇”, “世事紛紛須如此, 常使英雄淚滿胸”.
- 제37회: 眉批, 共18則, 如“妙”, “幾令世人無處生活”.
- 제38회: 眉批, 共27則, 如“趣”, “□是好郎中, 不可思議”.
- 제39회: 眉批, 共11則, 如“警醒”, “武帝去蚌□”.
- 제40회: 眉批, 共22則, 如“猿態”, “如此官上和下睦, 官□心興”.

이상 전 40편에 이르는 《형세언》 각 작품의 평어와 미비를 살펴보았는데, 문중의 행간평 등은 후인의 것으로만 남아있는 실정이고 대부분 원래 평어는 眉批임을 알 수 있다. 회별로 보면 제27회에 62則으로 가장 많고 제39회에 11則으로 가장 적은 상황인데 전체 미비의 수는 총 1,134則에 이르고 있다. 미비의 형식을 보면, 글자에 따라 가장 짧은 미비는 是, 妙, 奇, 趣 등과 같이 한 글자로 된 이른바 一字評이고 좀 긴 것은 20여자를 넘는데 가장 많은 글자로는 제9회에 나오는 34자에 이르는 評語다.

전통적인 평점소설의 경우, 미비는 물론 회별 작품의 본문 가운데 다양한 형태의 평어가 산재되어 있지만, 지금 《형세언》의 경우에는 行間評이나 문중의 雙行注는 거의 확인되지 않고 다만 後人の 필사에 의해 남겨진 行間評과 眉批가 초반부에 약간 나오는 정도다. 제1회에만 보이는 후인의 평어는 行間評 28則과 眉批 2則 등 총 30군데다.

현재 글자가 확인되는 後人の 行間評을 예로 들면 [第9葉上] 忠孝人也, [第13葉下] 一片丹忠千古不沫, [第15葉下] 貞卓其心千古罕儔, [第16葉下] 君子間以利誘身, [第19葉下] 苦語怨態句句怨蘊 등이 있으며, 眉批로는 [第10葉上]의 ‘可謂

傳家忠孝'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물론 제1회의 내용상 원서의 서문이나 미비에 서도 충효에 관한 평어가 많지만 후인 독자의 하나로서 평어를 남기게 된 평자의 절절한 사상과 감정이 이러한 평어를 통해 표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현존 판본에 후인이 남긴 閱讀의 흔적은 여러 군데 보이는데 대개 圈點과 句讀點, 옆줄(橫線) 혹은 문중의 가운데에 남긴 특이한 형태의 붓글씨 먹줄이다. 제1회를 비롯하여 제7회, 제8회, 제9회, 제10회, 제11회, 제16회, 제17회, 제19회 등에 모두 읽은 흔적을 남기고 있으며 이후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원본이 훼손된 부분을 정교하게 보수한 곳도 두 군데 있는데 제2회의 第2葉下(영인본 상권 114쪽)의 제7행에서 9행까지 60자(喜他. 期他大成.....常叫族長王道來說)가 찢겨진 상태인데 다른 종이를 덧붙여서 필사로 보충하였으며, 제8회의 경우에는 第19葉上下(영인본 상권 427-428쪽)의 전체 내용 총236자(遙想禁城今夜月.....回朝歸骨)를 다른 종이를 넣어 정교하게 보완하였다. 이 부분에는 앞에서 이어지는 시 2구와 온전한 7언율시 3수가 수록되었는데 당시 누군가에 의해 찢겨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제17회에는 만주족의 장수로서 당시 명나라와 전쟁을 하고 있던 努爾哈赤, 孫得功 등의 이름을 먹으로 지운 흔적이 있다.³⁰⁾

3.3 현존하는 삽화 고찰

중국소설의 삽화는 명대 嘉靖이후 萬曆에 이르러 황금시기에 이른다. 萬曆연간의 출판중심은 建陽과 南京이었고, 杭州와 蘇州의 판화도 유명하였다. 초기에는 上圖下文式의 삽화가 많았으나 점차 整版式 삽화로 이동하였고 특히 金陵(남경)과 錢塘(항주)의 소설 삽화는 정판식으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³¹⁾ 치

30) 陳慶浩선생은 이러한 행위가 淸初의 忌諱에 의해 행해진 것으로 보고 淸대 초기까지 이 책이 중국의 경내에 있었다가 후에 조선으로 전해진 것으로 추정했다. <導言>(影印本 권두) 참조.

31) 金秀玟, 《明清小說의 挿圖研究》(고려대학교 중문과 석사논문, 2005) 참조. 근년에 고전

열한 경쟁체제에 돌입한 출판시장에서는 좋은 소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포장하는가에도 매출의 성공여부가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형세언》이 나올 무렵에는 대부분의 소설이 이미 삽화를 구비하여 간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림은 텍스트를 해석하는 또 하나의 수단이기도 하다. 작품의 전체 줄거리 중에서 어느 장면을 취하여 삽화로 만들 것인지, 또 문중에 나온 여러 구절이나 시구 중에서 어느 구절을 취하여 실을 것인지도 삽화를 만드는 사람에게 달려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삽화가는 작품의 최초 독자에 해당하고, 또한 엄밀한 의미에서 또 하나의 비평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소설의 본문과 소설 삽화와의 상호 관계는 향후 좀 더 천착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형세언》은 현재 규장각에 11책이 남아있고, 목록에 총12책이라고 하여 권수 1책이 유실된 것으로 밝혔다. 실제 고찰결과 본문은 각 권당 4회씩 10책으로 묶여 있어야 맞는 것인데 후에 11책으로 새로 장정한 것이다.³²⁾ 다만 없어진 권수 1책에 무엇이 수록되었던 것인지 궁금한데 일반적으로 총서와 목록, 삽화가 들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삽화는 다른 소설의 경우를 살펴보다라도³³⁾ 각회별 2폭씩 총40엽, 80폭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陳慶浩선생은 규장각소장본 《형세언》을 발굴한 이후에 기존에 전하고 있던 《幻影》, 《三刻拍案驚奇》(三刻), 《(別本)二刻拍案驚奇》(別刻) 등의 판본과 원문을 정밀한 대조를 하면서 판본 계통을 밝혔고, 또한 《別刻》에 실려 있는 17葉(34幅)의 삽화 중에서 14葉(28幅)의 삽화가 원래 《형세언》에 수록되었던 것임을 확인하여 영인본의 권수에 실었다. 원래 《別각》의 후반부

소설 삽화에 대한 연구는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분야다. 그동안 미술사 영역에서 연구되던 고전 삽화는 출판문화사 및 텍스트와 이미지 등을 중심으로 중문학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32) 현존 규장각본은 제2책, 제7책, 제8책, 제9책을 각각 3회씩 묶고 나머지는 4회씩 묶어서 11책으로 장정된 것임.

33) 당시 화본소설의 수록작품을 40편으로 한 것이나 40葉의 정교한 삽화를 수록하는 것이 출판의 常規처럼 되어 이는 三言二拍 이래로 거의 통상적인 것이었다. 화본소설이 아니어도 陸雲龍의 《魏忠賢小說斥奸書》(殘本)와 陸人龍의 《遼海丹忠錄》의 경우도 하나같이 40회로 맞추고 있으며 또한 삽화를 구비하고 있었다.

24회의 작품이 《형세언》으로부터 온 것이지만 본문을 약간씩 고치는 과정에서 원래의 詩句도 달라지거나 없어졌는데 지금 남아있는 삽화의 題詩가 여전히 《형세언》의 시구를 담고 있으므로 이는 훗날 《별각》을 위한 만든 것이 아니라 《형세언》 원전의 삽화였던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다.

삽화 제6도(상)의 제시는 “水咽離宮愴, 山攢失國眉”, 삽화 제12도(상)의 제시는 “門戶鎖重重, 深扇傾城色”, 삽화 제14도(하)의 제시는 “黃金又向侯門獻, 唯聽遊魂異吟” 등인데 이들 시구는 모두 《別刻》에서는 삭제한 부분이고 《형세언》에만 남아 있는 구절이다. 삽화의 배열에서도 《別刻》에서는 뒤집혀져 있는 경우가 있으나 판심에 원래 간행번호를 넣고 있어 당시 《형세언》의 삽화를 그대로 복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현재 확인된 14葉의 삽화는 영인본 권두에 실렸고, 삽화에 쓰인 題詩는 陳慶浩선생의 <導言>에 수록되었다.

한편 한국에서는 또 1993년에 朴在淵선생에 의해 《中國小說繪模本》이 影印 간행되고 상세한 解題가 수록되었다. 이 책은 1762년(영조38년) 完山李氏(근년에 思悼世子로 밝혀짐)³⁴⁾의 命에 의해 金德成이 중국소설의 삽화에서 뽑아 새로 그린 삽화 128폭 중에는 《형세언》에서 나온 한 폭의 그림이 들어있어서 주목을 받았다. 이는 《별각》으로부터 발굴한 24폭 중에도 들어있는 제5회의 고사에 해당하는 「董文受辱」에 관한 삽화다. 두 그림의 고사배경은 같으나 그림의 구도는 약간 달라 《중국소설회모본》의 그림에서는 집안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소설 속에 등장하는 향아리도 세 개를 그려 넣고 있다. 김덕성의 그림은 중국소설의 삽화에서 뽑은 것이지만 새로 그리는 과정에서 다른 그림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변형이 있었으므로 이를 달리 그릴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후에 나온 《歡喜冤家》로부터 소재를 취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³⁵⁾ 실제로 완산이씨의 小敍에 수록된 74종의 소설목록 중에는 오늘날

34) 정병설 교수는 <사도세자가 명해서 만든 화첩, 중국소설회모본>(《문헌과 해석》 제47호, 2009년 여름호)에서 惠慶宮洪氏의 《한중록》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思悼世子の 문집 《凌虛關漫稿》에 수록된 글과 완산이씨의 서문이 유사함을 밝혀 《중국소설회모본》의 서문을 쓴 완산이씨는 곧 사도세자임을 증명하였다.

35) 박재연 편, <완산이씨「중국소설회모본」해제>(《中國小說繪模本》, 강원대출판부, 1993)

유일본으로 남아 있는 《형세언》의 이름이 들어 있어 당시 思悼世子の 書齋에 이 책이 분명히 들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혹은 지금 규장각에 남아 있는 《형세언》이 바로 그 책일 수도 있을 것이다.³⁶⁾

4. 맺음말

《형세언》이 한국에서 발굴된 이후 이미 20여년이 지났으며 그동안 영인본의 간행에 수많은 교감본과 교주본이 나왔고 석사논문과 박사논문도 국내외에서 이미 여러 편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본 연구에 착수하게 된 것은 그동안 미뤄왔던 규장각 소장본 《型世言》 원본과 현행 영인본과의 정밀한 대조를 통해 영인본에서 혹시 누락되었을지도 모르는 평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였다. 또한 이를 계기로 그동안 늘 깊은 관심과 흥미를 갖고 있었으면서도 직접 밝힐 기회가 없었던 《型世言》 발굴과 연구의 과정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조금이나마 밝히고자 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型世言》은 명말의 화본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당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명대사회의 타락한 도덕과 혼란스런 풍속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문학적, 예술적 성취는 그다지 높지 않았지만 소설의 간행자 陸雲龍과 편찬자 陸人龍은 이 책의 序文과 回末評, 眉批 등의 평어를 통하여 전통적 의미의 충효사상과 정절개념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도덕적 재무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이미 앞서서 馮夢龍의 경우에도 風俗를 교정하고 세상을 教化하려는 의

36) 당시 宮中에서 思悼世子가 收藏하였던 中國小說의 행방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 다만 正祖는 明末 小品文을 비롯하여 통속소설과 희곡류를 극히 싫어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엄격히 금지하고 궁중에 있던 책들도 모두 처분토록 했다고 한다. 이는 부친 사도세자의 불행한 결말에 대한 반성으로 인한 것이며 이로 인해 대대적인 문체반정 운동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崔溶澈, <조선왕실에서의 중국소설 수용과 반향> (《漢字漢文研究》 제6집, 고려대 한자한문연구소, 2010. 12) 참조.

도를 드러낸 작품은 있었으나 소설의 형식을 빌어서 이처럼 강력하게 충신과 효자와 절부를 드러내고 남녀의 자유로운 애정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난하는 수구적인 작품은 많지 않았다. 이 책의 간행자는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각 작품의 小序와 평자의 필명, 본문에서의 眉批와 回末評 등을 최대한 활용하였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유가적 윤리관을 강조하고 文以載道의 방법으로 소설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시도하고자 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논문 편목의 제한으로 우선 《형세언》의 序文과 眉批를 중심으로 평점비평의 형식적 評點 체계와 評者의 署名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중심으로 논술했으며, 이들 서문과 미비에서 담고 있는 내용의 분류와 이를 통해본 평자의 공리적 소설관 등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발표하고자 한다.

< 參考文獻 >

- 《型世言》, 明崇禎五年前後, 崢霄館刊原本, 서울대奎章閣所藏, 現存11冊
 《型世言》(影印), 臺灣 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 共三冊(上中下), 1992, 臺北
 《型世言》, 樂善齋인해본(권3, 4, 5, 6), 韓國學中央研究院所藏
 朴在淵 교주, 《型世言》, 강원대학교 출판부, 1994
 朴在淵 교주, 《형세언》(인해본), 학고방, 1995
 朴在淵 교주, 《주선던》, 선문대학교 중한번역문헌연구소, 2001
 陳慶浩 교점, 《型世言》, 江蘇古籍出版社, 1993, 南京
 覃君 교점, 《型世言》, 中華書局, 1993, 北京
 陳慶浩 교점, 《型世言評注》, 新華出版社, 1999, 北京
 權寧愛, 《型世言研究》, 臺灣 福記文化圖書, 民國82(1993), 臺北
 顧克勇, 《陸雲龍兄弟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 北京

< 中文提要 >

《型世言》為明末崇禎年間，杭州文人陸人龍所編撰，由其兄陸雲龍在崢霄館刊行的話本小說集。此書在中國早已被迷失，1987年陳慶浩先生調查奎閣時發現，當時筆者也有機會熱心幫助調查及影印原書，並把資料以研究目的提供給他，後來這些資料由臺灣中央研究院中國文哲研究所影印出版，竟引起海內外學界的強烈關注。因此筆者一直關心《型世言》的資料和研究，而始終沒有機會正式參加研究行列。這次筆者關注《型世言》的序文及眉批的批評形式及其思想內容。而由於論文篇幅的限制，本文中發表序文的體制和評者署名的命名方式，以及眉批和後人行間評的形式和統計。至於序文和眉批等的評點批評內容，以及由他考察的評者的小說觀念和社會思想方面，只好下次機會發表。

關鍵詞：型世言，陸雲龍，陸人龍，序文，眉批，小說評點

원고접수일	심사일정	1차수정	게재확정	출간
2012. 1. 15.	2012. 2. 7.	2012. 2. 16.	2012. 2. 25.	2012. 2. 29.